

기고

국 중 균 광주북부소방서 현장지휘 담당



조상님 생각나게 하는 별초

추석 하면 떠오르는 게 추석 당일엔 가족들이 모이고 한가위의 기분을 만끽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이렇게 고마운 마음으로 추석을 맞이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두는 일이 있는데 바로 별초이다.

매년 추석이 돌아오면 조상님 산소 별초 때문에 크고 작은 애환이 많다. 얼마 전 방송에서는 별초를 하다 말벌에 쏘여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기도 했다. 하지만 조상을 숭배하는 가장 초보적인 일이 아마 별초일 것이다.

별초하지 않은 무덤을 보면 후손이 없거나 조상을 숭배하지 않는 집안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는 이유 또한 그 때문일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필자 집은 별초에 꽤 신경을 쓰는 편이다. 금년에 지난 달 7월초에 한번 별초하고 9월에 또 할 예정에 있다.

조상님 별초를 하면서 정성을 기울이고 또한 옛날 조부님 모습이 아른거리며 그때는 내가 아직 철없던 학생이어서 잘 못 해드린 것이 마음이 항상 죄스러웠다.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서 정성과 즐거운 마음으로 별

초를 하고 있다

조상님이 있었기에 필자도 이 자리에 있고 단란한 가정을 일구며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는 부모님이 생존해 있고 아들들이 다 먹고 사는데 조상님 산소는 무관심해 무연고 묘소인지 알 수 없는 묘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

지근거리에서 별초하는 아저씨 말에 의하면 모두들 도시로 떠나고 고향에 남은 사람은 친척 중에 자기뿐이라는군요. 그래서 이맘때면 자기 혼자서 그 많은 산소를 별초해야 한다고 하소연 한다.

그분의 하소연과 안타까운 한탄을 듣다가 나는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분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고 '별초할 때 안가는 놈, 참석은 못해도 전화 한통 제대로 안하는 족속들' 그분 말씀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나역시 잘 알고 있다.

요즘은 본인이 별초하기 싫으면 별초대행 업체에 전화만 하면 별초해 주고 관리해 주는 대행업체가 많이 있다.

제가 별초하는 저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산소를 떠올리며 다짐을 했다.

"제가 언제까지 별초를 위해 찾아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할아버님, 할머니님, 제가 앞으로는 진정한 효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찾아와 꼭 별초를 정성껏 해드리겠다"고 다짐해 본다.

필자는 추억과 인정을 베푸는 고향이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다.

社 說

어린이 교통사고 유의해야

행정안전부는 여름방학이 끝나고 가을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하교 시간대인 오후 2~6시에 초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의 절반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초등학생이 보행 중에 당한 교통사고는 모두 1만4천61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천743건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에서 일어났다.

월별로는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1천302건)부터 꾸준히 사고가 증가해 5월(1천676건)에 가장 많았다. 이후 여름방학 기간인 7월(1천377건)과 8월(1천146건)에는 줄었다가 9월(1천274건)에 다시 늘어났다.

5년간 초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에 따른 사상자는 1만4천98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77명이 숨졌고 1만4천909명이 다쳤다.

사상자를 시간대별로 보면

오후 4~6시가 4천96명(사망 25명·부상 4천71명)으로 가장 많았고 오후 2~4시 3천597명(사망 10명·부상 3천587명), 오후 6~8시 2천607명(사망 13명·부상 2천594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에 전체 사상자의 51.3%가 집중됐다.

초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원인은 운전자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54%,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27%, 신호위반 17% 등 운전자 부주의에 속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초등학생들은 좁은 골목길 등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등 돌발행동을 할 수 있고, 키가 작아 운전석에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아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어린이들에게도 올바른 보행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 운전자는 좁은 골목길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복운전 사소한 생활로 예방할 수 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처벌 기준도 다르다. 최근 언론에서 이슈화 되고 있는 보복운전은 특수상대 특수협박 특수폭행 또는 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 도로위에서 사소한 시비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단 1회의 행위라도 폭행, 손괴, 협박이 있으면 성립된다. 이점에서 의도를 갖고 특정인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이 되는 난폭운전과는 차이가 있다.

2019년 6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대수는 2,344만대이지만 흔히 깜빡이라고 부르는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에 대하여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법적의무가 아니고 에티켓 정도로 여기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8조1항(제차신호조작불이행)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틀,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

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 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대다수 운전자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하고 또한 스마트국민제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면 차량 소유주에게 위반 사실 통지 및 과태료(3만원) 부과와 자동적으로 발송하게 된다.

방향지시등을 사용하면 사소한 것지만 매우 중요한 의무임에도 이를 무시하는 것은 다른 차량에 크나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도로는 모두가 함께 달리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편한대로 운전할 수 있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방향지시등을 켜면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운전습관을 가진다면 사고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동수 / 보성 미려파출소 경사

집회·시위에도 매너가 필요하다

작은 목소리가 모여 하나의 큰 울림으로 진행되는 집회시위가 이따금 소음과 진동을 유발하여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하는 집회·시위 일지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는 국민들의 눈살만 찌푸리게 할 뿐 공감을 얻기 어렵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40dB 이상의 소리는 집중력 저하 및 말 실 실 통지 및 과태료(3만원) 부과와 자동적으로 발송하게 된다.

방향지시등을 사용하면 사소한 것지만 매우 중요한 의무임에도 이를 무시하는 것은 다른 차량에 크나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도로는 모두가 함께 달리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편한대로 운전할 수 있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방향지시등을 켜면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운전습관을 가진다면 사고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동수 / 보성 미려파출소 경사

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소음관리팀을 꾸려 집회시위 지역에 출동, 소음 제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유지·중지명령이나 확성기 일시적 보관 조치를 취하는 등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소음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확성기 등을 사용하지만 일부 집회·시위 참가자들은 이를 악용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집회·시위 참가자들은 알아 할 것이다.

평화로운 집회·시위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목적달성을 위한 의사표현의 자유도 보장되어야겠지만, 이로 인해 국민의 평온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김관형 / 무안경찰서 경비교통과 순경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가심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광 일교율 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수도고장신고 121
- ▲전기고장신고 123
- ▲가스사고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가 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팩스 (062) 222-5547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 경 호

편집인·편집국장 강 서 원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남문로 753번길 7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브랜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지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